[UCI]I804:24011-200000231841

2007년 2월
교육학석사(국어교육)학위논문

# 정지용 시의 가톨리시즘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이 윤 영

# 정지용 시의 가톨리시즘 연구

(Catholicism Study of Jeong Ji Yong' Poetry)

2007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이 윤 영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00373517 2007-04-09

# 정지용 시의 가톨리시즘 연구

지도교수 백 수 인

이 논문을 교육학(국어교육)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6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이 윤 영

이윤영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임영천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박수인 인

2006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목 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사 및 연구방법

Ⅱ. 가톨리시즘 시의 형성배경
1. 소외와 불안의식 극복 - 어린 시절의 고통
2. 초기시에 대한 반성 - 모더니즘에 대한 비판

Ⅲ. 시에 드러난 가톨리시즘의 특성
1. 내용상의 특성
1) 신에 대한 찬양
2) 삶의 비애
3) 죽음 인식
2. 형식상의 특성
1) 성경의 인용
2) 불과 빛의 상징

Ⅳ. 가톨리시즘 시의 의의와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 A Study on Catholicism in Jeong Ji-Yong's Poetry

Lee Yoon Young
Advisor : Prof. Baek Soo in ph.D.
Major :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Jeong Ji-Yong is a poet who made a significant stroke for the flow of modern Korean poem through his enormous poems. He wrote not only works containing the spirit and energy of soul and thought affected by the times but also poetries exploring the essence of modern poems based on the thorough awareness of poetic diction. He established the firm basis of imagism or modernism and engrafted Catholicism and traditional Oriental thoughts into poems as well.

When we look into the world of Ji-Yong's poems, we can find out his poems belonging to modernism in his early days, to Catholicism in his middle years and to tradition in his later times. The history of modern Korean literature has mainly light on his poetic literature focusing on Ji-Yong's modernism and tradition poems. However, his Catholicism poems thought not to be remarkable lie in an important position to connect Ji-Yong's early poems and later ones. It is not only because he started writing Catholicism poems to reflect on modernism poems and to overcome his life in those days, also because he attempted to express what religion could not make him overcome with traditional thoughts.

Ji-Yong came to have religious belief to overcome the grief and unstable consciousness for his adversary times, which in turn affected his poetic world. In addition, Ji-Yong came to write Catholicism poems

to reflect on his early poems. He tried to get over the absence of the nature of thoughts with Catholicism poems containing the religious spirit as his early poems had remained only in the feelings and images. This is the very reason that Ji-Yong wrote Catholicism poems.

Major contents of Catholicism poems dealt with praises to God, grief of life and the will to overcome the recognition of death. Ji-Yong's catholic belief is contained here. Ji-Yong's Catholicism poems formed belief into literature through the way of allusion and symbol. He used the subjects from the Bible to express his belief in many cases. The way of expressing the Holy spirit through the symbol of fire and light often appears in Ji-Yong's Catholicism poems. The image of brightness and ascension from fire is connected to God.

# Ⅰ. 서론

## 1. 연구목적

정지용은 한국현대시의 흐름에 큰 획을 그은 시인이다. 두 권의 시집과 두 권의 산문집, 한 권의 시선집을 낸 바 있는 정지용은 당대에 '시인의 시인'[1]이라 일컬어지고 해방 후에도 '현대시의 아버지'[2]라 불리울 정도로 한국 현대시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선 시인이다. 그의 시는 시대의 영향을 받은 정신적, 사상적 정기가 담겨 있는 작품뿐 아니라, 시어에 대한 투철한 자각을 토대로 현대시의 정수를 탐색한 작품을 많이 썼다. 이미지즘이나 모더니즘의 기반을 확고히 하였으며, 가톨리시즘과 전통적인 동양사상을 시에 접목시키기도 하였다. 80년대 해금 전까지는 금지된 문인으로서 모든 논의에서 제외되었지만 해금 이후 그의 문학에 대한 재평가와 확인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그 중 모더니스트의 면모를 보여주었던 모더니즘시에 대한 연구와 전통적 동양사상으로의 변모 과정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중기시에 해당하는 가톨리시즘 시에 대한 연구는 그렇지 못한 형편이다.

가톨릭 신앙이 우리 문학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실을 볼 때, 가톨리시즘 수용의 선구자에 해당하는 정지용에 대한 가톨리시즘 측면의 시 연구는 너무나도 미비하다. 정지용·윤동주·박두진·김현승 등으로 맥을 잇는 가톨리시즘 시는 현대 문학 형성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한용운이 쓴 일련의 불교적 신앙시가 전통적 사상을 바탕으로 창작되었다면 지용의 시를 비롯한 가톨리시즘 시는 외래 사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용은 우리의 전통이 아닌 서구의 가톨리시즘의 시를 우리 현대시에 접목시켰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지닌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모더니스트였던 지용이 왜 가톨리시즘에 눈을 돌리게 되었는지, 어떤 표현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따져보고자 한다. 이는 지용의 지금까지 세계를 이해하는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톨리시즘 시의 시사적 위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데도 모탬이 될 것이다.

---

1) 박용철, 「신미시단의 회과와 비판」, 『박용철 전집』, 동광당서점, 1939, 79쪽.

2) 유종호, 「현대시의 50년」, 『비순수의 선언』, 신구문화사, 1962, 14쪽.

## 2. 연구사 및 연구방법

정지용에 대한 평가는 지금까지 그치지 않고 있다. 그의 시적 모더니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견해와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양분되어 있다. 초기의 긍정적인 논의는 金起林에 의해서이다.

芝溶은 言語에 대하여 주의한 最初의 詩人이며 우리말의 各個의 單語가 가지고 있는 무게와 感觸과 光과 陰과 形과 音에 대하여 그처럼 的確한 識別을 가지고 구사하는 詩人을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한다. 3)

梁柱東은 정지용을 '現代詩의 한 驚異的 存在'로 보고 '아마 現詩壇의 作品으로써 佛語나 英語로 飛言하여 저들의 超現實的 藝術傾向 그 貴族的 水準에 竝賀라면 이 詩人을 除外하고는 달리 없을 듯하다.'4)고 評하여 당시 文壇에서의 그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李揚河는 '말의 비밀을 알고 휘잡아 조종하고 구사하는데 놀라운 天才를 가진 詩人'5)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당시 대부분의 평가는 정지용에게 절대적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으나 이러한 평가에 비해 林和는 정지용을 技巧派로 규정하고 '技巧派는 詩의 내용과 사상을 放棄한다.'6)고 批判하고 있다.

1940년대에도 이러한 대립적 양상은 계속되나 평자들의 태도가 30년대와는 달리 작품을 통해 작가에게 접근하려는 보다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1950년대에 이르러서는 정지용에 대한 評文이 거의 발표되지 않았다. 이는 그의 越北說이 팽배해 社會的 여건상 그에 대한 언급이 어려웠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1960년대에는 지용 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 진다. 宋稶은 英美 모더니즘

---

3) 김기림, 『시론』, 서울 백양당, 1947, 47쪽

4) 梁柱東, 「1933년도 詩壇 批評」, 『新東亞』, 3권 12호, 1933.

5) 李揚河, 「바라든 지용시집」, 『朝鮮日報』, 1935.

6) 林和, 「曇天下의 詩壇一年」, 『新東亞』, 5권 12호, 1935.

적 관점에서 지용의 시를 거의 전면적으로 부정하여 지용의 시는 짧은 산문을 엮어 놓은 데 지나지 않고 주제도 표현도 현대시로 볼 수 없을 만큼 폭이 좁다고 비판하였다.[7]

柳宗鎬는 정지용이 詩的 단어의 藝術性과 自律性을 最初로 自覺하였다고 우리 언어의 시적 가능성을 의식하여 실천하였으며 일체의 舊調를 타파하고 유니크한 내재율을 최초로 발명하였다는 점 등을 들면서 그 이전의 시가 민족의식이나 계급 감정을 생경하게 노출하는 아마추어 시 인데 반해 지용은 개척적인 프로 詩人이며 이면에 있어 그 후배들은 전면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뿐 아니라 동년배들도 영향을 받았다는 긍정적인 논지를 폈다.[8] 정지용을 이미니스트 내지 모더니스트 계열의 시인으로 보면서도 지용의 시가 단순한 소재주의에 떨어지지 않고 시 <백록담>에서 그러하듯, 정신적인 上昇에 대한 상징성을 내포한다고 본 김우창의 관점은 긍정적, 부정적 가치판단적 논의를 해석적 논의로 이끌고자 한 시도였다.[9]

金宗吉은 지용을 이미지스트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이유를 정확한 이미지와 가톨릭적인 節制에서 온 듯한 고전주의 言語의 統制力과 執中力으로 들고 있다. 또 지용을 英美 현대시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 이미지즘은 그 테두리 안에서는 비교적 좋은 詩가 드물었는데 지용의 시만 그 사이에 두어둔다면 가장 우수한 이미지스트의 시의 하나가 될 것 같다고 했다.[10]

1970년대에는 보다 다양한 연구들이 나타났다. 대표적인 논의로 김현·김윤식, 金容稷, 김시태, 吳鐸藩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오탁번은 작품의 실제 분석을 통해 시경을 비롯한 중국 한시의 영향을 밝히는 단서를 찾았고, 지용시의 주요 題材를 바다, 산, 도회, 향촌, 신앙 등 5항목으로 고찰하였다.[11] 金容稷은 지용 시에 나타나는 기법적인 새로움은 모더니즘, 이미지즘의 의식적인 모방이 아니라 스스로 터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고 시어, 구문법, 은유, 심상 등으로 나누어 대표적인 작품을 분석하였으며 그의 이미지스

---

7) 송욱, 「韓國모더니즘 批判-정지용즉 모더니즘의 自己否定」 11집, 청구대, 1961.

8) 유종호, 앞의 책.

9) 김우청, 「韓國詩와 形而上」, 『世界』, 1968.

10) 김종길, 『詩論』, 深究堂, 1965.

11) 오탁번, 「지용시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0.

트로서의 면모를 공미적 심상의 제시에서 찾았다.[12] 이는 언어 運用에 재능을 발휘한 지용 시의 해석에 있어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부터 납·월북 작가들에 대한 해금이 이루어져 그에 대한 정당한 평가 작업이 가능해졌다. 지용 시에 대한 總體的, 單獨的인 硏究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분석적이고 총체적인 연구는 文德守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지용 시의 原形的 이미지를 찾아 프라이의 심상이론을 빌어 '바다→들→산→하늘'의 상승과정을 따라 分析한 바, '바다'는 묵시적 심상쪽으로 가려는 가능성을, '들' 또는 '뭍'은 고향(또는 조국) 喪失意識, 이방인 의식을 드러내며 종교시의 '하늘' 심상은 묵시적 심상을, 그리고 '산'의 심상은 정신적 상승과 시인 자신의 극기와 자제, 인내와 무욕에 상응하며 그의 자연에서는 인간도 자연화, 사물화한다고 결론지었다.[13] 김학동의 단행본 『정지용 연구』는 가장 전면적인 전기 연구이고 원전의 연구이다. 梁汪容의 「정지용 시 연구」는 객관적인 時期 區分과 섬세한 원전의 정리, 텍스트의 객관적인 分析에 의의를 지닌다.[14] 그는 통계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지용 시의 리듬, 행과 연, 비유와 심상, 어조 및 거리 등을 分析하였다. 辛進은 시의 상징적 구조체라는 관점하에서 지용 시의 상징적 체계와 미적 구조, 정신적, 정서적 맥락을 해석하였다.[15]

1990년대 와서는 정지용의 전반적인 연구에서 탈피하여 부분적 특성을 단일 주제로 삼은 연구가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言語의 감각미, 정지용의 생애와 문학, 정지용의 시와 산문 등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에서 정지용의 종교시에 관한 논의들이 나타난다. 김윤식은 정지용의 가톨리시즘 시를 "가톨릭을 자기 고뇌의 근본 문제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한갓 詩的인 멋으로 바라보았다"고 기술한 바 있다.[16] 한편 김환태는 거룩한 체념의 노래가 곧 지용의 종교시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최종수는 정지용의 시 <다른 한울>, <임

12) 金容稷, 『한국현대시연구』, 삼지사, 1974.

13) 文德守, 『한국모더니즘 시연구』, 시문학사, 1981.

14) 梁汪容, 「정지용시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논문,1988.

15) 辛進, 『우리 시의 상징성 연구』, 동아대학교 출판부, 1994.

16) 김윤식, 「가톨릭시의 행방」, 『현대시학』, 1970.

종> 2편을 들어 아름답고 감동적인 종교시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정지용을 초신자의 단계에 있는 시인으로 규정하고, 결과적으로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같은 기독교 시인으로 다룰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였다.[17]

이러한 논의 이후 鄭義泓은 "정지용의 종교시는 일부 선행 연구자들이 언급한 바대로 가톨릭적 주제를 찾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톨릭적 주제가 오히려 뚜렷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그의 종교시는 구조상 이미지의 밀도력에 대한 미적 가치가 그의 다른 계열의 작품에 비해 뒤떨어질 뿐이다"라고 했다. 또한 "감정의 절제 및 사물의 객관적 표현미가 부재"되어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정지용의 가톨리시즘 시에 관한 연구는 1990년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지용의 시는 한국 현대시, 한국 모더니즘 시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초기의 긍정, 부정의 평가와 1970년대 이후 모더니즘 수용 문제, 동양적, 도교적 시 정신, 생애와 작품의 관련성, 운율의 상징 등 지용 시에 관한 연구는 끊이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정지용의 가톨리시즘 시의 세계를 조명하는데 있어, 종교시에 대한 찬반론의 대립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가톨리시즘 시라고 명확하게 구분 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18] 하지만 지용은 <가톨릭청년>의 창간 때부터 본격적으로 가톨리시즘 시의 세계에 몰입하기 시작하여 그에 대한 시편을 많이 발표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주로 이 시기에 발표된 시를 중심으로 정지용의 가톨리시즘 시가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정지용에게 있어서 가톨리시즘 시는 기독교 신자인 작가가 절대자인 신을 찬송하거나, 작가 자신의 인간적 소망·고뇌와 회개를 신에게 고백하는 심정을 담은 시라고 할 수 있다.[19]

---

17) 최종수, 「정지용의 기독교시」, 『신학지남』, 1982.

18) 가톨리시즘 문학을 정의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종교와 문학의 문제를 모두 다루어야 하고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인복, 최민순, 구상은 가톨리시즘 문학을 정의한 바 있다.
이인복은 '사상적 감동을 줄 수 있는 가톨릭적 주제 내용에 문학적 이미지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언어 표현으로 이루어진 예술을 가톨릭 문학이다'라고 하였다. 최민순은 '가톨릭 예술이란 인류 구체의 기관인 가톨릭의 이념과 원칙에 봉사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구상은 '종교적 모랄과 문학적 모랄의 모순과 대립과 그 상충 속에서 탄생한 문학작품'이라고 하였다.

19) 신규호는 『한국기독교 시가연구』에서 정지용의 기독교시는 모두 11편으로 보았다. 신앙시는

## Ⅱ. 가톨리시즘 시의 형성 배경

### 1. 소외와 불안의식 극복 - 어린 시절의 고통

정지용의 초기시는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그리움, 삶에 대한 비애와 고독을 담은 시라고 할 수 있다. 정지용의 첫 시집의 제3부에는 <해바라기씨>, <지는 해>, <산넘어 저쪽> 등 23편의 시가 있다. 이 작품들은 대체로 고향을 중심으로 한 향토적 분위기와 발상에서 생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작품에는 정다운 고향에 대한 동경, 고독의 의식이 담겨져 있다.

그의 시작들을 제작시기에 따라 살펴보면, <풍랑몽>(1922), <향수>, <압천>(1923), <내 맘에 맞는 이>, <무어래요>, <숨기내기>, <비둘기>, <석류>, <산옛색시 들녁사내>, <바다>, <황마차>, <새빨간 기관차>(1925) 등의 차례로 놓이며 동지사대에 입학한 이후에는 고향과 일본 경도의 시편들이 동시적으로 쓰여지고 있다. 이처럼 지용의 시에서 고향은 삶의 현실 못지 않게 중요한 시의 진원지라 할 수 있다.[20] 이렇듯 '고향'은 지용에게 있어서 향토애, 민족, 동양 정신을 포괄한 정신적 토양이며, 안식적, 그의 문학적 현실이기도 했다. 객지에서의 생활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현실의 자신 모습에 대한 슬픔을 더욱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

<나무>, <은혜>, <임종>, <그의 반>, <다른 한울>, <또하나 다른 태양>, <승리자 김 안그레아>, 기독교 본격시 <불사조>, <별>, <갈릴레아 바다>, <비극>이 그것이다. 양왕용은 「정지용 시 연구」에서 <무제>, <임종>, <별>, <은혜>, <갈릴레아 바다>, <다른 한울>, <또다른 태양>, <불사조>, <나무>, <승리자 안드레아>, <비극>, <슬픈 우상> 등 12편을 종교시로 보았다. 그밖에 박용철은 12편, 문덕수는 9편, 김기현은 14편, 김윤식은 6편만을, 유종환은 12편, 나종수, 박진희, 조영일 등은 18편을 종교시로 언급하였다. 필자는 <촉불과 손>, <바람>, <천주당>에도 가톨릭적 신앙이 담겨 있다고 보고 위의 12편에 시에 포함시켜, 본고에서 모두 15편의 시를 고찰하고자 한다.

20) 김은자, 「정지용시의 현실과 비애」, 『정지용』, 새미, 1996. 298쪽.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뷔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짚벼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아란 하늘 빛이 그립어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섶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傳說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의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것도 없는
사철 발 벗은 안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줏던 곳,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하늘에는 성근 별
알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짖고 지나가는 초라한 집웅,
흐릿한 불빛에 돌아 앉어 도란 도란거리는 곳,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향수> 전문

<향수>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시에 나타난 고향의 모습은 평화롭고 아늑하기만 하다. 가족적이고 향토적인 색채가 강한 서정시이다. 지용은 아름다운 고향의 모습을 담음으로써 고향을 그리워하는 자신의 심정을 표현했다. 그는

고향을 늘 평화롭고 가족, 친지가 함께 살아가는 곳으로 그리고 싶어 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안온함과 평화를 드러내는 이 시는 역사적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 시절 의식의 고달픔과 압제를 달랠 수 있었다. 반면에, 같은 '고향'을 제재로 다루면서 변해버린 고향에 대한 냉정한 의식을 담은 시도 있다.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러뇨.

산꿩이 알을 품고
뻐꾸기 제철에 울건만,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머언 항구로 떠도는 구름.

오늘도 뫼끝에 홀로 오르니
흰점 꽃이 인정스레 웃고,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
메마른 입술이 쓰디 쓰다.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높푸르구나.

<고향>

지용은 고향을 통해 삶에 대한 고통을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일본에서 너무나도 외로운 유학생활과 조국의 현실을 깊이 체험한 식민지 청년에게 고향은 더 이상 예전의 향토성과 휴식, 평화를 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지용은 고뇌하고 번민하였으리라 짐작된다. 그는 현실의 비애와 시련을 온 몸으로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의식은 <카페 프란스>, <태극선>, <우리나라 여인들은> 등과 같은 시에서 드러난다. <향수>가 향토적인 삶을 지향하고 있다면, <카페 프란스>는 현실에 대한 울분과 거부의 내면을 담고 있다. 국내와 국외에서 정치적 사회적 삶을 체험한 식민지 청년의 목소리를 갖고 있다. 여기서

보여주듯 지용은 나라도 집도 없는 존재에 대한 상실감과 슬픔, 비애 등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 상황에서 지용은 극도의 소외의식과 불안의식에 빠져있다.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굴욕적인 삶을 살아야겠고, 어린 시절부터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생활을 보내야 했으며, 일제 말과 해방기로 이어지는 역사의 풍파를 그대로 맞으며 시대의 어려움을 견뎌내야 했다. 계속되는 일제의 강압적인 통치와 부자유 속에서 살아가면서 지용은 더 이상 식민지 지식인으로의 삶에 대한 고뇌를 극복하지 못한다. 이런 시기에 지용은 가톨릭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 물론 지용은 어린시절 가톨릭에 대한 교육으로 인해 가톨릭적 믿음을 거부감없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생각한다.[21]그 속에서 지용은 가톨릭에 대한 믿음을 통해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즉, 종교적 신앙을 가짐으로써 불안의식을 극복하였으며 이러한 의식은 지용의 시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인간이 소외의식이나 불안의식에 빠졌을 때, 그러한 상항을 극복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작품의 세계의 전도도 이러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심리학자, 철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다.

크레어윅스는 「불안이란 무엇인가」에서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일·용기·종교를 들고 있다.[22] 불안감이 우리를 정복하려 할 때, 용기를 갖고 대처해야 하며, 일에 열중하거나 종교적 신앙을 가짐으로써 불안의식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학자인 파펜하임은 「현대인의 소외」에서 소외 극복을 위하여 '종교로 돌아가라는 외침은 오늘날 강한 반응을 일고 있는 듯하다.'[23] 모레노는 「인간은 왜 불안한가」에서 불안을 벗어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신앙뿐이라고 주장한다.[24]

---

21) 지용의 가톨릭적 인생관은 그의 선친의 영향이 컸다. 그의 선친은 충북 옥천에서 士族의 후예로서 일시적으로 중국, 만주에 다녀온 후 한의사가 되었을 뿐 아니라 가톨릭에 입교하여 아들 정지용에게 영향을 끼쳤다.

22) 크레어윅스, 김원평 譯, 「불안이란 무엇인가」, 자유문학사, 1978, 254쪽.

23) 파펜하임, 황문수 譯, 「현대인의 소외」, 문예출판사, 1982, 127쪽.

24) 모레노, 이문원 譯, 「인간은 왜 불안한가」, 문음사, 1983, 137쪽.

위의 심리학자와 철학자의 말과 같이, 지용은 당시 식민지 지식인이 지녀야 했던 좌절과 불안의식, 어린 시절부터 겪은 궁핍한 생활, 가장 예민한 시기에 적국 일본 땅에서 느껴야 했던 식민지인의 서러움 등 일제 말과 해방기로 이어지는 시대의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가톨릭 신앙이 후에 지용의 시 세계에까지 고스란히 영향을 미친다.

## 2. 초기시에 대한 반성 - 모더니즘에 대한 비판

지용이 가톨리시즘 시를 택한 또 다른 이유는 초기 사물시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방향의 모색으로 볼 수 있다. 임화는 '節制와 統御'의 정신을 구현한 초기시는 결국 사상적 결핍을 초래하였다.[25]고 하였다. 지용의 초기시는 감각과 이미지만이 시에 남아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작품에서 내용성과 사상성을 추구하는 가톨리시즘을 선택한 것이다. 즉, 사상성의 부재를 신앙의 정신으로 극복하려 하였다.

순수시인으로서 천재적 재능에 대한 각광에 반해, 그는 카프 문인들, 특히 임화로부터 사상 부재라는 비판과 그것으로 인한 불명예를 언제나 의식해야 했다. 이러한 반성이 지용시를 신앙의 세계로 이끌게 하였다. 다음과 같은 진술에서 엿볼 수 있다.

> 정신적인 것은 만만하지 않게 풍부하다. 자연, 人事, 사랑, 죽음 내지 전쟁, 개혁 더욱이 德義的인 것에 멍이 든 육체를 시인은 차라리 평생 지녀야 하는 것이, 정신적인 것의 가장 우위에는 학문, 교양, 취미 그러한 것보다도 愛와 祈禱와 感謝가 거한다. 그러므로 신앙이야말로 시인의 일용할 시적 糧道가 아닐 수 없다.
>
> 情趣의 시는 漢詩에서 황무지가 완전히 없어지고 말았으리라. 진정한 愛의 시인은 기독교 문화의 개화지 구라파유럽에서 족출하였다. 영맹한 이교도일지라도, 그가 지식인일 것이면 기독교 문화를 다소 반추하는 것임에 틀림없다.[26]

---

25) 임화, 『문학의 논리』, 학예사, 1940. 625쪽.

26) 정지용, 「시의 옹호」, 민음사, 1988, 243쪽.

이러한 지용의 주장은 신앙이 없는 사람은 높은 정신적 거점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 창작에 있어 '정신적인 것의 가장 우위에 있는' 종교적 이데올로기가 절대적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지용이 가톨리시즘을 수용한 것은 그의 초기시가 띠고 있는 감각적 인상의 '언어 유희성을 극복'27) 하고, '시에 사상을 도입하는 새로운 지평'28)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절대자인 '신은 사랑으로 자연을 창조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성경 성전류를 심독하여 시의 원천에 침윤하는 시인은 불멸한다'고 함으로써 시에 있어 중요한 것이 '종교적 사랑'임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의 이러한 주장이 그로 하여금 시 창작에 있어 신앙인 가톨릭에 관심을 갖게 했고, 그 결과 신앙시를 창작하기에 이른 것이다.29)지용의 신앙시는 초기시가 감각적 인상에만 충실했던 것을 반성하면서 자신의 문학 세계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 이것은 자기 반성과 새로운 시적 방향을 모색하는 지용에게 적절한 '시적 몸짓'30)일 수밖에 없다.

사물 위주의 감각적인 시에 대한 반성으로 말미암아 지용이 가톨릭에 눈을 돌리게 된 구체적 근거는 해방 후 지용이 쓴 '조선시의 반성'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 日帝 末期까지의 良心的 文學徒는 小市民層 民族情緖의 최후 處女性만을 固守하기 위하였던 것이므로 다분히 個性的이요 主觀的이요 孤立的인 것이다. 따라서 지극히 소극적인 憂鬱悲哀 아니면 까닭없는 明朗快活의 非定期的인 神經質的 발작의 藝術的 形象化에 정진하였던 것이다. 表現技術에 있어서는 多情多恨을 주조로 하는 封建時代 詩人 文士의 手法的 원형에 外來的 感覺, 色彩 音樂性을 착색하며 無氣力하게도 미묘한 完成으로서 그친 것이므로 이를 次代 民族文學에 接木시키기에는 血行力이 枯渴한 것이다.31)

---

27) 김윤식, 「모더니즘의 한계」, 『한국근대작가논고』, 일지사, 1982, 95쪽.

28) 김준오, 「지용의 종교시」, 『정지용연구』, 새문사, 1988, 42쪽.

29) 신규호, 『한국 현대시와 종교』, 국학자료원, 2003, 483쪽.

30) 정의홍, 「정지용 시연구에 대한 재평가」, 『대전대학 논문집』, 4집, 1985, 51-69쪽.

31) 정지용, 「조선시의 반성」, 『문장』 27호, 1948, 93쪽.

## Ⅲ. 시에 드러난 가톨리시즘의 특성

### 1. 내용상의 특성

#### 1) 신에 대한 찬양

내 무엇이라 이름하리 그를?
나의 영혼안의 고운 불.
공손한 이마에 비추는 달,
나의 눈보다 값진 이,
바다에서 소사올라 나래 떠는 金星,
쪽빛 하늘에 흰꽃을 달은 高山植物,
나의 가지에 머물지 않고,
나의 나라에서도 멀다.
홀로 어여삐 스스로 한가로워-항상 머언 이,
나는 사랑을 모르노라. 오로지 수그릴 뿐.
때없이 가슴에 두 손이 여미어지며
굽이굽이 돌아나간 시름의 黃昏 길 우-
나-바다 이편에 남긴 그의 반임을 고이 지니고 것노라.

-<그의 반> (『시문학』 3호, 1931.10.) 전문

이 시는 지용의 가톨리시즘 시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시이다. 신에 대한 믿음과 존경, 찬양이 가장 극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그 바탕에 깃든 지용의 깊은 신앙심이 문학적으로 잘 형상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의 '그'라는 존재는 정지용의 신앙적 대상이자 절대 타자인 신적 존재이다. 1연에서 그는 '고운 불', '달', '눈보다 값진 이, '금성', '고산식물'이라고 표현하였다. 이것들의 속성은 原素的인 것(불), 신체기관(눈), 우주공간의 별(금성), 식물(고산식물) 등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우주공간의 별까지 포함시켜 시적 공간을 높은 곳, 곧 수직적 이미지로 연계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상들은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이다. 이는 곧 가까이 할 수 없는 절대적 존재이므로 나는 그를 경이롭게 바라보고 존경해야 함을 의미한다. 성스러운 존재인 '그'를 절대적이고 순응적인 자세로 찬양하고 있다.

자신의 인생이 '시름의 황혼길'위에 놓여 있으며, 바다 이편에서 신의 일부됨에 위안을 받고 의지하며 사는 화자는 인간의 有限性을 철저히 인식하게 된다. 이렇게 신앙적 자아의 신에 대한 畏敬과 공경으로부터 출발한 지용의 소박한 종교시는 한 개인의 문제를 벗어나 인간의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제재로 다루기에 이른다.32)

바람 속에 薔薇가 숨고
바람 속에 불이 깃들다.

바람에 별과 바다가 씻기우고
푸른 뫼ㅅ부리와 나래가 솟다.

바람은 音樂의 호수.
바람은 좋은 알리움!

오롯한 사랑과 眞理가 바람에 玉座를 고이고
커다란 하나와 永遠이 펴고 날다.

-<바람>(『동방평론』, 1932.4) 전문

믿음을 성스럽고 아름다운 것으로 노래하고 있다. 장미가 숨고, 불이 깃들고, 별과 바다가 씻기우고 푸른 뫼ㅅ부리와 나래가 솟게 하는 이 바람은 성령을 의미한다. 성령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 '장미'가 숨을 수 있으며, 신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불'이 깃들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바람'을 잠잠한 '호수'와 '알리움', 즉 신의 말씀으로 비유하고 있다. 화자는 신에게서 사랑을 느끼고 진리를 알게 된다. 신의 모습을 바람으로 제시함으로써 '신'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를 갈망하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자연의 이치를 통해 절대자의 오묘한 섭리가 나타나 있다.

신의 존재가 겉으로 직접 드러나지 않고 '바람'이라는 시어를 통해 나타났지만, 지용이 얼마나 신을 경이로운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작품이다.

32) 문진아, 「정지용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2, 31쪽.

누어서 보는 별 하나는
진정 멀-고나.

아스름 다치랴는 눈초리와
金실로 잇은 듯 가깝기도 하고,

잠살포시 깨인 한밤엔
창유리에 붙어서 엿보노나.

불현 듯, 소사나 듯,
불리울 듯, 맞아드릴 듯,

문득, 령혼 안에 외로운 불이
바람처럼 일는 悔恨에 피여오른다.

힌 자리옷 재로 일어나
가슴 우에 손을 넘이다.

-<별>(『가톨릭 청년』 4호, 1933.9) 전문

위의 시에서 '별'로 표현된 하느님의 존재는 '진정 멀'다고 말하였다. 또, '금실로 잇은 듯' 가깝기도 하다고 하였다. 이로써 신의 존재는 경이롭기만 하다.

1연에서 화자는 누워서 멀고 먼 곳에 있는 별을 바라보고 있다. 아득히 먼 곳에 있는 신에게 좀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2연과 3연에서는 나약한 존재로 한 밤에 잠 살포시 깨인 상황에서 선망의 대상인 별을 엿보는 것이다. 아직은 범접할 수 없는 신의 존재 대한 화자의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다. 4연과 5연에서는 영혼 안의 외로운 별이 회한 속에서 피어오른다는 것이다. 점차로 신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신에게 한걸음씩 가까워지고 있다. 여기서 '회한'이란 '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던 때에 대한 것이며, 이를 지금 후회하고 한스러워 한다. 마지막 연에서는 머나 먼 곳에 있는 신을 일찍이 모시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흰 잠옷 채로 일어나 가슴에 손을 여미고 기도

한다. 가슴 위에 손을 올려 기도드리는 모습에서 신에 대한 믿음이 간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신을 찬양하며 앞으로도 계속 따르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이밤에 安息하시옵니까.
내가 홀로 속에ㅅ소리로 그대의 起居를 問議할삼어도 어찌 홀한 말로 붙일법도 한 일이오니까.

무슨 말슴으로나 좀더 높일만한 좀더 그대께 마땅한 言辭가 없사오리까.

눈감고 자는 비달기보담도, 꽃그림자 옮기는 겨를에 여미며 자는 꽃봉오리 보담도, 어여삐 자시올 그대여 !

그대의 눈을 들어 푸리 하오리까.
속속드리 맑고 푸른 湖水가 한쌍.
밤은 함폭 그대의 湖水에 깃드리기 위하야 있는 것이오리까.
내가 감히 金星노릇하야 그대의 湖水에 잠길법도 한 일이오리까.

(중략)

심수한 바다 속속에 온갖 神秘로운 珊瑚를 간직하듯이 그대의 안에 가지가지 귀하고 보배로운것이 가초아 계십니다.
먼저 놀라올 일은 어쩌면 그렇게 속속드리 좋은것을 진히고 계신것이옵니까.

心臟, 얼마나 珍奇한것이옵니까.
名匠 希臘의 손으로 誕生한 不世出의 傑作인 뮤--즈로도 이 心臟을 차지 못하고 나온 탓으로 마침내 美術館에서 슬픈 歲月을 보내고 마는 것이겠는데 어찌면 이러한것을 가지신것이옵니까.
生命의 聖火를 끊임없이 나르는 白金보다도 값진 도가니인가 하오면 하늘과 따의 悠久한 傳統인 사랑을 모시는 聖殿인가 하옵니다.

(중략)

不吉한 豫感에 떨고 있노니 그대의 사랑과 孤獨과 精進으로 因하야

그대는 그대의 온갖 美와 德과 華麗한 四肢에서, 오오,
그대의 典雅 燦爛한 塊體에서 脫却하시여 따로 따기실 아츰이 머지 않어 올가 하옵니다.

그날아츰에도 그대의 귀는 이오니아바다ㅅ가의 흰 조개껍질같이 역시 듣는 맵시로만 열고 계시겠읍니까.

흰 나리꽃으로 마지막 裝飾을 하여드리고 나도 이 이오니아바다ㅅ가를 떠나겠읍니다.

- <슬픈 偶像>(『조광』 29호, 1938.3.) 일부분

이 시는 성모 마리아의 외형과 내면을 묘사한 작품이다. 이 시를 조영일은 '정지용의 가톨릭 귀의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작품이다'고 말했다.[33]

1연부터 12연까지는 성모 마리아의 외형을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모습만을 그려낸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예찬의 태도가 담겨 있다. '그대'는 '비달기'보다 '꽃봉오리'보다 어여쁘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눈'을 '호수'에, '머리칼'을 '흑단'에, '심장'을 '백금'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대'는 '귀하고 보배로운' 것, '속속들이 좋은 것'을 지니고 있다.

13연부터는 성모 마리아의 내면 세계를 묘사하고 있다. 그대는 온갖 '미'와 '덕'과 '화려한 사지'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화자는 성모 마리아를 신과 같이 절대적인 존재로 여기고 찬양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의 제목처럼 성모 마리아는 '슬픈 우상'이고 만다. 지용은 삶의 고통과 비애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톨릭으로 귀의했고, 가톨리시즘 시를 쓰기 시작했다. 신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가득찼던 신앙은 현실에서 또다른 한계를 느끼게 한다. 때문에 절대자라고 생각했던 성모 마리아마저 '슬픈 우상'이 되고 만 것이다. 신을 찬양하면서도 어떤 한계를 느꼈던 지용의 고뇌가 느껴지는 시이다.

2) 삶의 비애

33) 조영일, 「정지용 시의 가톨릭시즘」,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0, 51쪽.

悔恨도 또한
거룩한 恩惠.

깁실인 듯 가느른 봄볕이
골에 굳은 얼음을 쪼기고,

바늘 같이 쓰라림에
솟아 동그는 눈물

귀밑에 아른거리는
등불을 끄다.

懇曲(모곡)한 한숨이 뉘게로 사모치느뇨?
탄식한 靈魂에 다시 사랑이 아실나리도다.

悔恨에 나의 骸골(해골)을 잠그고져.
아아 아프고져!

-<恩惠>(『가톨릭 청년』 4호, 1933.9.) 전문

1연에서 화자는 '회한도 또한 거룩한 은혜'라고 하였다. 여기서 화자는 그동안의 삶에 대해 회한을 느끼고 그것이 깊어졌으나, 이제는 신을 알게 되었고 회한이 '은혜'가 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다. 화자가 느낀 '회한'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화자의 '회한'은 현실적 상황에서 오는 모든 고통과 고뇌이다. 현실적 상황에서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에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의 존재를 알기 전 지용의 삶과 연관된다. 지용은 식민지의 지식인으로, 가난함으로, 슬픈 가족사로 심리적 방황과 정신적 고통의 삶을 살다가 그것을 종교로 극복하고자 하고 종교에 귀의하게 됨을 나타낸다. 2연에서 '봄볕은 얼음을 쪼'긴다고 하였고, 3연에서 '바늘같이 쓰라림'에 눈물이 솟아난다고 하였다. 여기서 '얼음'과 '눈물'은 그동안의 삶의 비애가 담긴 시어라 할 수 있다. 현실적 상황에서 느끼는 비애는 '모곡한 한숨'을 짓게 하고 '탄식한 영혼'을 지니게 한다. 이런 회한에 '나의 각골을 잠그고져'하고, 깊어진 회한 자체는 신에 대한 '거룩한

은혜'를 일깨우게 한다.

悲哀! 너는 모양할 수도 없도다.
너는 나의 가장 안에서 살었도다.

너는 박힌 화살, 날지 않은 새,
나는 너의 슬픈 울음과 아픈 몸짓을 진히노라.

너를 돌려보낼 아모 이웃도 찾지 못하였노라.
은밀히 이르노니-<幸福>이 너를 아조 싫여하더라.

너는 짐짓 나의 心臟을 차지하였더뇨?
悲哀! 오오 나의 新婦! 너를 위하야 나의 窓
과 우슴을 닫었노라.

이제 나의 靑春이 다한 어느 날 너는 죽었도다.
그러나 너를 묻은 아무 石門도 보지 못하였노라.

스사로 불탄 자리에서 나래를 펴는
오오 悲哀! 너는 不死鳥 나의 눈물이여!

-<不死鳥>(『가톨릭 청년』 10호, 1934.3) 전문

1934년 발표된 이 시는 인생과 세계에 대한 기독교인의 지극한 비애감을 심도있게 전해줌으로써 십자가에 달린 예술의 모습을 상기시켜 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34]

화자는 '비애'를 '너'라고 표현하고,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비애'는 '박힌 화살'이며 '날지 않은 새'이고, '슬픈 울음'과 '아픈 몸짓'을 지닌 존재이다. 또한 행복조차 '너'를 싫어한다. 다시 말해, '너'는 아주 불행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존재가 바로 '나의 가장 안에 살'았다고 1연에서 말하고 있다. '나'는 '비애'를 안고 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화자가 근원적인 슬픔에 싸여있음을 드러내 준다. '비애'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

34) 신규호, 「정지용 기독교시 연구」, 성결대 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28, 성결대학교출판부, 1999, 243쪽.

여 지용은 그의 우울하고 슬픈 감정을 표출하였다. '박힌화살'이나 '날지 못하는 새' 등의 이미지는 '슬픔', '울음', '아픔'이라는 실존적, 운명적 고통을 환기시킨다. 하지만 '너'를 죽지 않는 '불사조'가 되어 나래를 편다고 마지막 연에서 말함으로써 근원적인 슬픔을 극복하고자 하는 지용의 종교적 의지가 나타나 있다. 곧 지용은 이런 근원적인 슬픔을 종교만이 해결해 줄 것으로 믿었다. 신규호는 이 시를 '인생과 세계에 대한 기독교인의 지극한 비애감을 심도있게 전해 주게 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모습을 상기시키는 작품이다.' 라고 하였다.[35]

> 遠近法이 어그러지고 보면 寫眞이 되지 않는다니 내가 맡은 「창으로 멀리 보이는 聖堂」이라는 藝術作品에서 나는 아조 遠近法에 서툴으다. 내체 어느 구석에 서서 보아야 우리 聖堂을 두고 作文이 지어질 것일가?
>
> 열없이 窓가지 걸어가 默默히 서다
> 이마를 식히는 우리쪽은 차다
> 무수히 씹히는 鉛筆 공지는 뚫다
>
> - <천주당>(『太陽』 창간호, 1940.1.) 전문

이 시에서 '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성당을 예술작품으로 표현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고 있지만, '원근법에 서투'른 '나'는 그것이 쉽지 않아 하고 있다. 그러나 성당을 그리기 위한 나의 모습을 단순히 형상화하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지용은 가톨릭을 통해 끊임없이 내면을 성찰하고, 고통과 슬픔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가톨리시즘 시는 지용의 감정을 표출하는 통로인 것이다. 그러나 점차 그것에 한계를 느꼈고, 현실에서의 비애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다. '내체 구석에 서서 우리 성당을 두고 작품이 지어질 것인가'에서 암시하듯 현실에서 부딪히게 된 비애가 종교적 믿음으로도 쉽게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후기 가톨리시즘 시에 속하는 이 시는 '삶의 비애'를 담고 있는 다른 시에 비해 성격이 다르다고 하겠다.

---

35) 신규호, 『한국현대시와 종교』, 국학자료원, 2003, 62쪽.

3) 죽음 인식

지용의 시에는 죽음에 관한 정신세계가 드러나 있다. 이 죽음은 슬픔보다는 아름다움으로 형상화되어 있는데 종교가 갖는 사후세계의 천당 존재가 지용의 시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나의 림종하는 밤은
귀또리 하나도 울지 말라.

나종 죄를 들으신 神父는
거룩산 産婆처럼 나의 靈魂을 갈르시라.

聖母取潔禮 미사때 쓰고 남은 黃燭불!

담머리에 숙인 해바라기꽃과 함께
다른 세상의 太陽을 사모하여 들으라.

永遠한 나그내ㅅ길 오시는
聖主 예수의 스신 圓光!
나의 령혼에 七色의 무지개를 심으시라.

나의 평생이로 나종인 괴롬!
사랑의 白金도가니에 불이 되라.

달고 달으신 聖母의 일흠 불으기에
나의 입술을 타게 하라.

-<臨終>(『가톨릭 청년』 4호 1933.9) 전문

이 시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화자가 임종을 앞두고 하는 고해성사라 할 수 있다. 1연에서 자기가 죽는 그날 밤에는 귀뚜라미 한 마리도 울지 말라고 하면서, 죽음을 앞둔 화자의 비장한 정신세계가 드러나 있다. 2연에서는 고해성사를 맡은 神父만이 자기의 영혼을 분별해 달라고 요구한다. 죽음 직

전, 신에게 하는 자기의 고백은 죽음이 생의 마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에 대한 믿음과 사후 세계의 존재와 연관된다. 이러한 생각은 3연 '聖母取潔禮 미사 때'라는 어구에서 더욱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4연에서는 자기의 영혼은 담머리에 고개 숙인 해바라기와 함께 다른 세상, 곧 천상의 태양을 사모하여 돌게 해달라고 기원한다. '다른 세상의 태양'은 사후 세계의 천당을 의미한다. 6연의 '白金 도가니의 불'은 회한의 불, 淨化의 불로 해석되기도 한다. 마지막 연인 7연에서는 聖母의 이름만 부르다가 죽게 해 달라고 함으로써 가톨릭적 색채를 선명히 하고 있다.

悲劇의 힌얼골을 뵈인 적이 있느냐?
그 손님의 얼골은 실로 美하니라.
검은 옷을 가리워 오는 이 고귀한 尋訪에 사람들은 부질없이 唐慌한다.
실상 그가 남기고 간 자최가 얼마나 향그럽기에
가리어 듣는 귀가 오직 그의 노크를 안다.
墨이 말러 詩가 써지지 아니하는 이 밤에도
나는 맞이할 예비가 있다.
일즉이 나의 딸하나와 아들 하나를 드린 일이 있기에
혹은 이 밤에 그가 禮儀를 가추지 않고 오량이면
문밖에서 가벼히 사양하겠다.

-<悲劇>(『가톨릭 청년』 22호, 1935.3) 전문

이 시를 통해 지용이 이 시를 발표한 시점인 1935년 3월 이전에 딸과 아들을 잃은 개인사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스스로 혈육의 사별을 겪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지용은 비극을 가져오는 죽음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시이다. 죽음은 슬프고, 생에 반하는 것으로 부정적인 것이지만, 지용은 신앙의 힘으로 숙연하게 죽음을 맞으며, 죽음의 문제를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다. 죽음의 얼굴은 美하고, 죽음이 남기고 간 자리가 향기롭다고 한 점으로 보아 알 수 있다. 또, '나'는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였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망설이지 않는다. 죽음을 오히려 당당한 어조로 서술하고 있다. 이는 가톨릭 신앙에서 세상의 비극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 고통이나 시련도 신앙인을 더욱 정련시키기 위

해 신에게서 부여되는 축복으로 이해하는 자세를 의미한다. 가톨릭 신자로서 비극과 죽음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상당히 높은 차원의 신앙적 태도를 보여준다.36)

앞서 발표한 <임종>에서도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시가 신에 대해 추종하는 마음이 앞서 죽음에 대해 좀 서투르게 다가갔다면, <비극>은 어느 정도 신앙의 경지가 깊어진 상태에서 죽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겠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중히 그것을 맞이하겠다는 죽음에의 긍정적인 인식, 더 나아가 죽음에의 겸허한 수락은 그가 대단히 깊은 신앙이 소유자라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37)

## 2. 형식상의 특성

### 1) 성경의 인용

지용의 가톨리시즘 시의 표현 방식을 살펴보면, 인용과 상징의 방법이 두드러진다. 지용은 성경의 내용이나 성경 속 인물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가톨릭적 믿음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나의 가슴은
조그만 '갈릴레아 바다'.

때없이 살레는 파도는
美한 풍경을 이룰 수 없도다.

예전에 門弟들을
잠자시는 主를 깨웠도다.

主를 다만 깨움으로
그들의 信德은 복되도다.

---

36) 이숭원, 『정지용 시의 심층적 탐구』, 태학사, 1999, 104쪽.

37) 박진희, 「정지용 종교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논문, 2001, 163쪽.

돗폭은 다시 펴고
키는 방향을 찾었도다.

오늘도 나의 조그만 <갈릴레아>에서
主는 짐짓 잠자신 줄을-.

바람과 바다가 잠잠한 후에야
나의 歎息은 깨달었도다.

-<갈릴레아 바다> (『가톨릭 청년』 4호, 1933.9) 전문

이 시가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신약성서 마태복음 등에 기록된 예수의 이적(예수가 폭풍을 잠재움)이다. 성서에 나오는 역사적 사실을 시 창작에 도입한 것이다. 갈릴레아 푸른 바다를 무대로 하여 종교적인 이적을 거듭한 예수 그리스도는 바다 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오는 예수로 경이와 신앙의 대상이 된다. 정지용은 복음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것이다. <갈릴레아 바다>는 '문학적 은유와 성서적 상징'을 통해 의심 많은 자신의 믿음을 성서 속에서 고백하고 있다.[38] 성서의 텍스트와 관련된 사화를 압축시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사실의 객관적 표현만이 아니다. 화자의 불안심리를 신앙적 믿음으로 극복하고자 함이 담겨있다.

'갈릴레아 바다'는 현세의 삶을 의미하고, 이러한 삶은 심한 고통과 불안으로 휩싸여 있다. 번민하는 화자는 성경에 나오는 갈릴레아 바다 이야기를 떠올린다. 제자들이 잠자는 主를 깨웠고, 主를 깨움으로 인해 '돗폭은 다시 펴고 키는 방향을 찾'았다.

이렇게 볼 때 화자는 현세라는 갈릴레아 바다에서 겪고 있는 심한 고통과 불안 가운데서도 '主'를 더욱 굳게 의지함으로써 마음의 평온을 되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신앙적 믿음을 성경의 이야기를 인용하여 화자는 평온한 종교적 삶의 추구를 표현하였다.

---

38) 신규호, 앞의 논문, 249쪽.

얼골이 바로 푸른 한울을 울어렀기에
발이 항시 검은 흙을 향하기 욕되지 않도다.

곡식알이 거꾸로 떨어저도 갓은 반듯이 우로!
어느 모양으로 심기여젓더뇨? 이상스런 나무 나의 몸이여!

오오 알맞은 位置! 좋은 우아래!
아담은 슬픈 遺産도 그대로 받었노라.

나의 적은 年輪으로 이스라엘의 二千年을 헤였노라.
나의 存在는 宇宙의 한낱 焦燥한 汚點이었도다.

목마른 사슴이 샘을 찾어 입을 잠그듯이
이제 그리스도의 못박히신 발의 聖血에 이마를 적시며-

오오! 新約의 太陽을 한아름 안다.

-<나무>(『가톨릭 청년』 10호, 1934.3) 전문

이 시는 '아담', '이스라엘', '그리스도의 못박히신 발의 성혈', '신약' 등 성경에서 쓰인 인물 혹은 사건 등이 인용됨으로써 가톨릭적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내고 있다. 1연에서 '얼골이 바로 푸른 한울을 울어렀기에'는 지용의 깊은 신앙심을 드러낸 부분이다. 시적 자아는 '나의 존재는 우주의 한낱 焦燥한 汚點', '아담의 슬픈 遺産도 받았노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있다. 예수의 삶에 대한 경건함의 표현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못박히신 발의 聖血에 이마를 적'심으로써 가톨릭적 신앙의 믿음을 계속 지속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작품은 자신을 나무에 감정이입시켜 투철한 가톨릭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생활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신약의 태양은 곧 예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한아름 안는다는 표현도 그에 대한 존경과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자신을 나무에 비유하여 표현하면서도 성경에 쓰인 인물들을 직접 드러냄으로써 지용의 신앙심이 그대로 노래되고 있다. 이러한 성경의 직접적 인유는 가톨릭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져 자신의 신앙심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결과라 할 수 있다.

온 고을이 밧들만 한
薔薇 한 가지가 솟아난다 하기로
그래도 나는 고하 아니하련다.

나는 나의 나이와 별과 바람에도 疲勞옵다.

이제 태양을 금시 일어 버린다 하기로
그래도 그리 놀라울리 없다

실상 나는 또 하나 다른 太陽으로 살었다.

사랑을 위하얀 입맛도 일는다.
외로운 사슴처럼 벙어리 되어 山길에 슬지라도-

오오, 나의 幸福은 나의 聖母마리아!

-<또 하나 다른 태양>(『가톨릭 청년』 9호, 1934.2) 전문

성경 속의 말이나 인물들이 직접 인용되어 사용된 것은 <또 하나 다른 태양>에서 볼 수 있다. '성모마리아'가 그러한 예이다. '나'는 '사랑을 위하여 입맛도 일는' 사람이고 '외로운 사슴'이다. 하지만 '나'는 '또 하나의 다른 태양으로' 살았다. 여기서 '태양'은 바로 성모마리아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마지막 연에서 '나의 행복은 나의 성모마리아'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의 가톨릭적 신앙이 명확히 표출된다.

그의 가톨릭적 인용은 다음 시에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새남터 욱진어 뽕닙 앞에 서서
옛어른이 실로 보고 일러주신 한 거룩한 니야기-.
압헤 돌아나간 푸른 물구비가 이땅과 함께 영원하다면
이는 우리 겨레와 함께 끗까지 빗날 기억이로다.
一千八百四十六年九月十六日
방포 취타하고 포장이 압서 나가매

무수한 흰옷 입은 백성이 결진한 곳에
이미 좌귀ㅅ대가 눕히 살기롭게 소삿더라.
황해의 거친 파도를 한짝 목선으로 넘어(오오 위태한 령적!)
(중략)
불가티 사랑한 나라땅을 밟은 조선 성직자의 장형 안드레아!

포학한 치도곤 앞에 조찰한 뼈를 부술지언정
감사에게 「소인」을 바치지 아니한 오백년 청반의 후예 안드레아·김대건!
(중략)
성주 예수 바드신 거짓질안을 딸어 거짓질안으로 죽은 복자 안드레아 !

오오 그들은 악한 권세로 죽인
그의 시체까지도 차지하지 못한 그날
거륵한 피가 이미 이 나라의 흙을 조찰히 씻었도다.
외교의 거친 덤풀을 밟고 잘아나는
주의 포도ㅅ다래가 올해에 百三萬송이 !

오오 승리자 안드레아는 이러타시 익이엇도다.

-<勝利者 金안드레아>(『가톨릭 청년』 16호, 1964.9) 부분

이 시는 역사적 토대 위에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순교정신을 높이 찬양하고 그 당시 '가톨릭을 탄압한 위정자들의 횡포에 대한 신앙적 지도자와 승리를 하나의 정신적 가치로 형상화'[39]하고 있다. 한국 천주교회의 상징인 성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위대한 신앙적 자세와 그 삶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1846년 9월 16일의 비극적 현장을 노래'[40]한다. 김대건 신부가 처형당하는 모습을 자세히 묘사함으로써 그의 기독교적 사랑과 높은 순교정신으로 그가 신앙적 승리를 획득했음을 칭송하고 있다. 가톨릭을 대표할만한 인물인 안드레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그를 찬양하는 이 시는 지용의 가톨릭적 믿음이 바탕이 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39) 정의홍, 「정지용시의 문학적 특성」,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2, 25쪽.

40) 이숭원 편저, 『정지용』, 문학세계사, 1996, 253쪽.

2) 불과 빛의 상징

지용의 종교시에는 불과 빛에 관한 시어가 유독 두드러진다. 여기서 불과 빛은 모두 지용의 신앙심이나 신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신을 깨닫지 못한 '어둠'의 상태에서 신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 비로소 '밝음'의 세계로 나온 지용의 신앙적 태도는 '빛'의 속성과 무관하지 않다.

<그의 반>에서는 '그'를 '나의 영혼 안의 고운 불'로 표현하고 있다.

내 무엇이라 이름하리 그를?
나의 영혼 안의 고운 불

'불'과 '빛'의 이미지는 사실 기독교 상징 중 가장 해묵은 일반화된 상징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진부한 것처럼 명료하고 구체적인 것이 또 있겠는가. 그가 원용하고 있는 '불'과 '빛'의 이미지는 '불사조', '별', '태양' 등으로 바뀌어 시편 하나하나에서 적절한 소재로 탈바꿈되고 있다.

바슐라르의 물질적 상상력에 의하면, 물의 이미지는 밑으로 낙하하려는 힘 자체이고, 빛의 이미지는 위로 상승하려는 힘을 함의한다. 따라서 물은 분명한 한계를 망각한 비관론이며, 빛은 초월적 절대성의 이상주의를 표상한다.[41] 이러한 이미지는 지용의 시에서도 초월과 상승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지용의 또 다른 작품에서도 '불'은 초월, 상승 뿐 아니라 신앙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임종>에서는 '황촉불', '태양', '사랑의 백금도가니의 불'로 불과 빛의 의미지가 나타난다. '불'은 인간의 모든 고뇌와 고통을 사그러지게 해버리는 힘을 지님과 동시에 성신에 대한 신앙심을 북돋아주는 힘을 지닌다.

<별>의 5연 '영혼 안의 외로운 불'은 제목인 '별'과 은유의 관계를 이룬다.

문득, 영혼 안의 외로운 불이
바람처럼 일는 회한에 피어오른다

---

41) 유성호, 「정지용의 이른바 '종교시편'의 의미」, 『정지용의 문학 세계 연구』, 깊은샘, 2001. 163쪽.

친숙한 두 개의 사물, 곧 '별'과 '불'이 상호간의 유사성 때문에 비교되면서 연결되어 있다. 성서에 나오는 '별'의 취의는 '그리스도의 탄생', '재림', '영화', '使者' 등이다. '불'은 성서에서 '성령'을 의미한다. 이처럼 은유에 의해 기독교적 교리나 신앙 체험이 예술적으로 승화되는 형상화 단계의 기독교 시는 신앙심이나 교리를 표면으로 노출하기보다는 문학적 예술성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교리는 내면화 되거나 무의식 상태로 작품에 관계하는 등, 문학성 속에 교리적 요소가 융합되어 형상화됨으로써 기독교 문학의 외면적 특성이 희박해지고 일반 문학적 성격을 띠게 된다.42)

고요히 그싯는 손씨로
방안 하나 차는 불빛!
별안간 꽃다발에 안긴 듯이
올빼이처럼 일어나 큰눈을 뜨다.

그대의 붉은 손이
바위틈에 물을 타오다.
山羊의 젓을 옮기다.
簡素한 菜蔬를 기르다.
오묘한 가지에
薔薇가 피줏이
그대 손에 초밤불이 낳도다

-<촉불과 손>(『신여성』 11호, 1931.11) 일부분

1연에서 '불빛'은 지용의 깊은 신앙심이다. '방안 하나 가득 찼다'는 지용의 종교적 믿음이 얼마나 깊고 큰 지를 보여준다. 1연의 3행과 4행은 지용이 신의 존재를 크게 깨달았음을 의미한다. 선친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가톨릭의 영향을 많이 받아온 지용이었지만,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한 순간의 깨달음이었다. 불과 빛은 어둠을 밝히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불과 빛은 지용 자신이 벗어나고자 했던 고뇌와, 비애의 삶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42) 신규호, 『한국현대시와 종교』, 앞의 책. 72쪽.

그의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었으나
그의 안에서 나의 호흡이 절로 달도다.

물과 聖神으로 다시 낳은 이후
나의 날은 날로 새로운 太陽이로세!

뭇사람과 소란한 世代에서
그가 다만 내게 하신 일을 전하리라!

미리 가지지 않았던 세상이어니
이제 새삼 기다리지 않으련다.

靈魂은 불과 사랑으로! 육신은 한낮 괴로움.
보인 한울은 나의 무덤을 덮을 분.

그의 옷자락이 나의 五官에 사모치지 안었으나
그의 그늘로 나의 다른 한울을 삼으리라.

-<다른 한울>(『가톨릭 청년』 9호, 1934.2) 전문

이 시에서는 신앙에 접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의 구원자로 영접하려고 결단을 내렸을 때의 감동과 겸손이 적절한 표현으로 잘 나타나고 있다. 즉 지용의 인간적, 세속적 갈등이 신앙으로 극복, 심화되는 가톨리시즘을 나타낸 작품으로 보인다.

1연에서 화자는 눈으로 주님이 모습을 확인한 일은 없지만 주 안에서 살아있는 자신의 존재에 지극히 만족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기쁨에 충만된 상태를 노래하고 있다. 2연에서는 1연에 나타난 화자의 행복함에 대한 모티브가 제시된다. 세례의식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어 날로 새로운 삶은 밝아졌다고 찬미한다. 이 때 새로운 삶을 태양으로 표현하였다. 이 역시 인류가 존재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태양으로 보았고, 신앙으로 인해 내가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 지용의 종교적 삶이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연에서는 주를 절대화시키고, 주께 최고의 가치를 두는 신앙의 충만함을 드러내고 있

다. 4연에서 주님을 알기 이전에 세속적 욕심을 버릴 수 없었으나 이제는 새삼스레 '기다리지'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5연은 신의 섭리에 대해서 주께 최고의 가치를 두는 신앙관이, 영혼의 일은 밝음으로, 육신의 일은 어둠으로 표상되었다. 그러므로 화자는 '다른 한울'을 지향했던 것이다. 聖神의 구원 이전의 삶을 어둠이라고 할 때, 그것의 극복은 새로운 태양빛을 가능하다는 것을 이 시는 담고 있다. '靈魂은 불과 사랑으로! 육신은 한낮 괴로움'에서 불은 사랑을 통해서 육신의 괴로움을 다 태워버릴 수 있다. 불은 사랑의 이미지도 내포하고 있다. 모든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 힘으로서의 존재이다.

## Ⅴ. 가톨리시즘 시의 의의와 한계

지용의 신앙은 대중적 복음의 전파라는 측면보다 현실적 고통, 개인적 비애의 정화라는 선상에 놓여있을 뿐이다. 즉, 집단의식이나 역사의식이 부재되었고,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만이 남아있다. 개인적 불행에서의 탈피에 일차적 관심이 있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앙적 체험이 개인적인 것에만 머물렀을 뿐 사회적 현실로까지 확대되고 있지 못하다. 그러한 신앙적 한계는 시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의 가톨리시즘 시에 대해 재롱에 그치고 말았다든지[43], 가톨릭적 고뇌가 결여되어 장식적 미학에 머물렀다든지[44], 가톨릭 신앙이 육화되지 못했다든지[45], 하는 비판이 제기된 것은 그 나름의 정당성이 있는 것이다.[46] 또한, 종교적 주제의 관념적 서술로 끝나고 예술적 형상화가 부족하다.

하지만 가톨릭적 신념의 문학은 우리 가톨릭 시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다. 지용의 가톨리시즘 시는 우리나라의 근대시 중 가톨릭 신앙을 담은 본격적인 시작으로 최초의 자리에 놓인다.[47] 지용은 우리 시의

---

43) 송욱, 『시학평전』, 일조각, 1963, 202쪽.

44) 김윤식, 『한국근대작가논고』, 앞의 책, 111쪽.

45) 장도준, 『정지용시 연구』, 태학사, 1994. 122쪽.

46) 김윤식, 『한국근대작가논고』, 앞의 책, 119쪽.

47) 이숭원, 『정지용 시의 심층적 탐구』, 앞의 책, 193쪽.

이질적인 요소인 가톨릭 신앙을 시에 끌어들여 새로운 시세계를 보였을 뿐 아니라 선구적이고도 독보적인 자리에서 신앙시를 창작하고 발표하였다. 정지용, 윤동주, 박두진, 김현승 등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가톨릭 시는 우리의 전통이 아닌 서구 가톨리시즘의 신앙시는 현대시에서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는 점과 서구 정신의 토착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가톨리시즘의 문학은 그 자체가 인간의 불안을 의식한 것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는데, 지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의 피압박과 통제, 착취 속에서 불안과 지식인으로서 갖는 고뇌,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던 파시즘의 위력 등의 인식으로부터 지용의 가톨리시즘 시가 시작되었다. 지용의 시에서 그러한 불안의식과 고뇌를 드러내고 신앙의 힘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믿음이 담겨있다.

## Ⅵ. 결론

지용의 시세계를 보면, 초기시에 해당하는 모더니즘 시, 중기시인 가톨리시즘 시, 후기시인 전통시로 변모해감을 알 수 있다. 한국현대문학사에서는 지용의 모더니즘 시와 전통시 위주로 그 시문학을 조명해 왔다. 그러나, 주목받지 못했던 가톨리시즘 시는 지용 시의 초기와 후기 시를 연결하는 중요한 자리에 놓여있다. 모더니즘 시에 대한 반성과 그 시절 삶의 극복을 위해 가톨리시즘 시를 쓰게 되었으며, 후에는 종교로도 극복할 수 없었던 점을 전통적 사상으로 표출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동안 소홀히 평가되어 왔던 가톨리시즘 시 15편을 대상으로 왜 가톨리시즘 시를 쓰게 되었는지에 관한 배경과, 그 양상을 고찰하였다.

지용은 불우했던 시절의 비애와 불안의식을 극복하고자 종교적 믿음을 갖게 되고, 그것은 곧 그의 시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톨리시즘 시는 신에 대한 찬양, 삶의 비애, 죽음을 인식하고 극복의지를 담은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그의 반>, <바람>, <별>, <슬픈 우상>은 신을 신비롭고 위대한 존재로 생각하고 그를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세가 나타나 있으며, <은혜>, <불사조>, <천주당>은 지용의 비애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다. 단순히 비애를 노래하기보

다 종교로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표현된 시이다. 마지막으로 <임종>과 <비극>은 죽음을 숙연하게 받아들이고 죽음은 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세계와 연관되어 있다는 지용의 죽음에 대한 종교적 믿음이 나타난 시이다.

또한, 지용의 가톨리시즘 시는 인유와 상징의 방법을 통해 신앙을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었다. 지용은 자신의 신앙심을 표현하기 위해 성경의 소재들을 많이 사용하였다. <갈릴레아 바다>, <나무>는 성경 이야기나 성경 속 인물들을 직접 인용하였으며, <숭리자 안드레아>는 신부 김대건과 관련된 종교적 사실을 장편시로 형상화하였다. 또, 불과 빛의 상징을 통해 성령을 표현하는 방식은 지용의 가톨리시즘 시에서 자주 등장한다. 불의 밝음과 상승의 이미지를 신과 연결한 것이다.

<참고 문헌>

1. 자료

권영민, 『정지용 시』, 민음사, 2004.

정지용, 『정지용 전집1,2』, 민음사, 2003.

2. 단행본

김기림, 『시론』, 서울 백양당, 1947.

김명옥, 「정지용 시에 나타난 상실과 소외의식」, 한국어문교육, 2000.

김용직, 『한국 현대시인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한국현대시연구』, 삼지사, 1974.

「모더니즘의 한계」, 『한국근대작가논고』, 일지사, 1982.

김우청, 「韓國詩와 形而上」, 『世界』, 1968.

김윤식, 『한국근대 문학사상가』, 일지사, 1982.

「가톨릭시의 행방」, 『현대시학』, 1970.

김은자, 『정지용』, 새미, 1996.

김종길, 『詩論』, 深究堂, 1965.

김준오, 「지용의 종교시」, 『정지용연구』, 새문사, 1988.

김효중, 「한국 현대시와 가톨리시즘」, 『가톨릭교육연구』, 1998.

문덕수, 『한국모더니즘 시연구』, 시문학사, 1981.

박용철, 「신미시단의 회과와 비판」, 『박용철 전집』, 동광당서점, 1939.

송욱, 「韓國모더니즘 批判-정지용즉 모더니즘의 自己否定」 11집, 청구대, 1961.

『시학평전』, 일조각, 1963.

신규호, 「정지용 기독교시 연구」, 성결대 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28, 성결대학교출판부, 1999.

『한국 기독교시가 연구』, 이화문화사, 1999.

『한국현대시와 종교』, 국학자료원, 2003.

유성호, 「정지용의 이른바 '종교시편'의 의미」, 『정지용의 문학 세계 연구』, 깊은샘, 2001.

유종호, 「현대시의 50년」, 『비순수의 선언』, 신구문화사, 1962.
이숭원, 『정지용 시의 심층적 탐구』, 태학사, 1999.
『정지용』, 문학세계사, 1996.
임영천, 「정지용의 전기적 문제점과 종교시 세계」, 『한국 현대문학과 기독교』, 태학사, 1995.
장도준, 『정지용 시연구』, 태학사, 1994.
정의홍, 「정지용 시연구에 대한 재평가」, 『대전대학 논문집』, 4집, 1985.
정지용, 「시의 옹호」, 민음사, 1988.
최종수, 「정지용의 기독교시」, 『신학지남』, 1982.

3. 논문

강신주, 「한국 현대 기독교 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1991.
권수린, 「정지용 시의 모더니즘 특성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1997.
김성태, 「 정지용 시의 표현에 관한 고찰」,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1990.
나종수, 「정지용의 기독교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노병곤, 「정지용 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1991.
문진아, 「정지용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1992.
박옥영, 「정시용 시 연구」,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박진희, 「정지용 종교시 연구」, 단국대학교 , 2001.
박희태, 「정지용 시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1995.
양왕용, 「정지용시 연구」, 경북대학교 ,1988
엄미라, 「가톨리시즘 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1998.
오탁번, 「지용시연구」, 고려대학교, 1970.
육순복, 「정지용 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1992.
장도준, 「정지용 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9.
정의홍, 「정지용시의 문학적 특성」, 동국대학교 대학원 , 1982.
조영일, 「정지용 시의 가톨리시즘」,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1990.